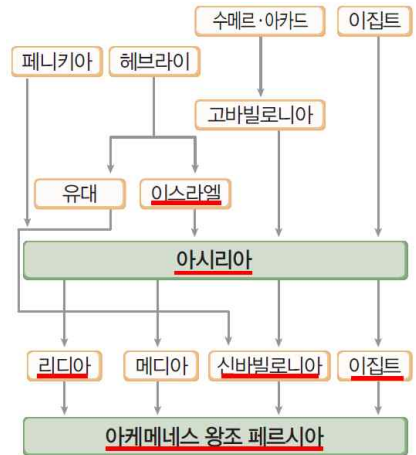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서아시아의 통일과 여러 제국

01. 아시리아(기원전 671~기원전 609)

- 아슈르바니팔 왕, 수도 니네베(Nineveh)
- 최초로 서아시아 세계 통일
- 중앙 집권 통치
: 군용 도로와 역전제(驛傳制) 정비
: 전국을 주(州)로 나누고 총독 파견
- 니네베 왕립 도서관 건립
- 지구라트 건설
- 강압적인 통치 방식
: 신바빌로니아와 메디아 연합군이 니네베를 점령(기원전 612)한 이후 멸망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변천>

02.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기원전 559~기원전 330)

- 수도 수사(Susa)
- 키루스 2세(5), 재위 기원전 559~기원전 529
: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 함락, 신바빌로니아 정복 등 서아시아 재통일
: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한 포용 정책(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

나는 키루스이다. 세계 제국의 왕이자 위대한 왕이며 신(아후라 마즈다)의 뜻으로 공표하니, 내가 살아 있는 한 너
 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 키루스의 칙령(기원전 539)

- 캄비세스 2세(6), 재위 기원전 529~기원전 522
: 이집트 정복
- 다리오스 1세(8), 재위 기원전 522~기원전 486
: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베히스툰(비시툰) 비문]
: 인더스강 유역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영토 확보
: 반란 평정, 정복 전쟁을 통해 그리스 식민지 정복
: 페르세폴리스 건설(페르시아의 도시, 기원전 518~)
: 20여 개 속주에 총독(사트라프) 파견
: 감찰 관리(왕의 눈·왕의 귀)를 파견해 총독 감시
: 왕의 길(수사~사르디스) 건설, 역참(驛站) 정비
: 화폐와 도량형 정비
: 운하 최초 건설(지중해~홍해)
: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기원전 479)
↳ 마라톤 전투 패배(기원전 490)
-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와 신봉
- 속주 총독들의 반란, 지배층의 분열
- 알렉산드로스의 침공[다리오스 3세, ★이소스 전투(BC. 333)·가우가멜라 전투(BC. 331)]으로 멸망



<키루스 원통(뺨기 문자)>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서아시아의 통일과 여러 제국】

03. 박트리아(= 대하국, 기원전 246~기원전 138)

- 디오도투스의 건국, 중앙아시아의 박트리아, 소그디아나(Sogdiana, 현 우즈베키스탄 지역) 지배
- 중앙아시아, 인도 북서부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 전파

04. 파르티아*(= 안식국, 기원전 247~기원후 226)

-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제국의 동방 영토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의 쇠퇴**
↳ **이란 계통의 유목민, 아르사케스 1세의 건국(수도 크테시폰)**, 정복지 주민들을 관대하게 통치
- **오로데스 2세**(재위 기원전 57~기원전 38), 로마 크라수스의 군대 격퇴(**카레 전투**, 기원전 53)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통 계승, 페르시아어와 문자를 사용
- **로마~인도의 쿠산 왕조~한(漢)을 연결하는 동서 무역로를 장악하여 중계무역으로 번영**
- 로마 제국, 인도의 쿠산 왕조 등과의 경쟁으로 쇠약
↳ **사산 왕조 페르시아(아르다시르 1세)에 멸망**

05. 사산 왕조 페르시아*(224~651)

- 아르다시르 1세, **수도 크테시폰(Ctesiphon)**,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내건 이란계 민족이 건국
- **메소포타미아~인더스강[Vs 인도의 굽타 왕조]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 사푸르 1세, 로마와 경쟁, **쿠산 왕조 침략**

: 호스로 1세, 전성기, 비잔티움 제국과 대결

• 중앙 집권 체제 강화(지방에 총독 파견)

• 중계무역으로 번영

: 동서 교역의 요충지를 차지한 지리적 이점

• 페르시아어, 아랍어, 썩기 문자 사용

• **조로아스터교의 국교화**

: 경전 『젠드아베스타』 편찬

• **마니교 등장과 탄압**

: 조로아스터교, 그리스교, 불교 등 융합

: 현세 부정, 금욕주의와 정신주의적 성향

: **세속화가 진행되던 조로아스터교와 대립**

: 이단으로 탄압 →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전래**

• 페르시아, 인도, 그리스 문화 등을 융합한 국제적 성격의 문화

• 건축과 공예

: 다양한 건축 양식이 결합된 건축술 발달

: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 발달**

: 로마, 인도, 한반도, 일본까지 전파

•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 왕실의 내분으로 쇠퇴

• **정통 칼리프 우마르 휘하 이슬람 군대와의 까디시야 전투 패배(636) → 수도 크테시폰 함락(637)**

↳ 사한샤 야즈데게르트 3세의 동쪽 도주 → 암살(651) → 페르시아의 이슬람 세계 편입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발전〉



〈페르시아와 신라의 물병〉



✿ 유럽 각국에 전시된 서아시아 고대 유물



아시아의 라마스상(대영 박물관)



페르가몬 출토 유물(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



수사 궁전 출토 타일(루브르 박물관)

✿ 조로아스터교

-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정성 들여 부지런히 땅에 씨 뿌리는 자가 수천 번 기도하여 얻은 것보다 더 풍성한 종교적 결실을 얻는다.

- 조로아스터

- 조로아스터는 자라투스트라의 그리스식 발음인데, 20세 경에 종교 생활에 입문하여 30세 경에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의 계시를 받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였다고 한다. 불을 신성시하여 배화교(拜火敎)라고도 불렸으며 중국에는 현교(祆敎)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었다.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는 구세주의 출현,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대교와 그리스교, 이슬람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 인도-유럽어족은 불을 신성시하여 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 불을 피워 재물을 바치는 습관이 있었다.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종교 역시 인도-유럽어족인 아리아인들의 불을 신성시하는 토속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전 『아베스타(Avesta)』에 의하면 세계 역사는 선·악 양신(兩神)의 투쟁 과정이며, 인간은 선신(善神)인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를 믿음으로써 악신(惡神)인 아히리만(Ahriman)을 이 세상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선·악 양신의 싸움은 선신의 승리로 끝나며,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선신을 믿은 자는 천국에, 악신 편을 든 자는 지옥에 떨어지나 최종적으로는 선신에 의하여 모든 인간이 구원된다고 생각하였다.

- ① 기원전 7세기경 예언자 조로아스터(Zoroaster)가 창시, ② 광명의 선신 아후라 마즈다와 암흑의 신 아히리만과의 투쟁에서 선신이 승리한다는 이원론적 종교, ③ 신전과 신상을 만드는 대신 야외에 성화단(聖火壇)을 만들어 예배, ④ 세계 구원, 최후의 심판, 사자(死者)의 부활, 구세주 출현 등을 신봉

✿ 『아베스타(Avesta)』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으로 아베스타어로 쓰여 있으며, 기원후 3세기경에 결집되었다.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인 아후라 마즈다 또는 그의 제령(諸靈)이 예언자 조로아스터에게 계시한 것으로, 우주의 창조, 법, 전례, 조로아스터의 가르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아베스타'란 페르시아어로 지식을 의미한다.

개념 Check

- ① ()는 기원전 7세기에 철제 무기와 기마병을 앞세워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하였다.
- ②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는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신앙, 다른 사람의 권리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 ③ () 1세는 전국을 20여 개의 속주로 나누어 총독을 보내고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 ④ ()는 페르시아 왕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번영하였지만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하였다.
- ⑤ ()는 224년 이란계 민족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하였다.

01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5-9월 모의평가]

세계 전염병의 연대기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전염병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안토니누스 역병 |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 **세로에 역병** | 암와스 역병 | 페스트(흑사병)

세로에 역병은 시리아, 아르메니아, 콘스탄티노폴리스 등의 원정에서 귀환한 군대를 통해 (가)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역병은 발열을 동반하는 선페스트의 일종으로 수도에서만 약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사한사 세로에도 이 역병에 걸려 사망했기에 세로에 역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은/는 마지막 사한사 야즈데게르드 3세 치세 때 재차 유행한 세로에 역병 탓에 국력이 약해졌고 결국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였다.

- ① 밀레트 제도를 운영하였다.
- ②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③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 ④ 아잔타 석굴 사원을 조성하였다.
- ⑤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03

(가) 왕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4-수능]

‘솔로몬의 잔’으로 알려진 이 유물의 중앙에는 (가)의 사한사 호스로 1세가 묘사되어 있다. 그는 대내적으로 조세 제도와 군사 제도를 개혁하여 제국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수도 크테시폰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또한 인접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리스 문화를 억압하는 가운데 아테네의 학교를 폐쇄하자, 이를 피해 온 학자들을 지원하여 학문 발달에 기여하였다.

- ① 맘루크 왕조가 멸망한 원인을 분석한다.
- ②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가 건설된 배경을 조사한다.
- ③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파악한다.
- ④ 왕의 눈이라 불리는 감찰관이 파견된 목적을 살펴본다.
- ⑤ 선악의 대립을 교리로 하는 종교가 국교화된 과정을 알아본다.

02

(가), (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5-6월 모의평가]

(가)와/과 (나)은/는 모두 이란 계통이 세운 왕조였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분열을 틈타 아르사케스 1세에 의해 세워진 (가)은/는 한과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하여 동서 교역으로 번영을 누렸고, 중국에서는 안식국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후 로마와의 대립으로 쇠퇴하다가 (나)에 멸망하였다. 3세기 초에 성립한 (나)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하였고,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내분으로 국력이 쇠약해지다가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하게 되었다.

- ① (가) - 마니교가 유행하였다.
- ② (가) -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해 수도로 삼았다.
- ③ (나) -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 ④ (나) - 왕의 눈, 왕의 귀로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 ⑤ (가)와 (나) - 살라미스 해전에서 격돌하였다.

04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9월 모의평가]

이 장신구는 에데사 전투에서 발레리아누스를 포로로 사로잡아 큰 승리를 거두었던 샤푸르 1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샤푸르 1세는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아르다시르 1세의 아들로 왕위를 이어받아 이 왕조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 ① 크테시폰을 수도로 삼았다.
- ② 티무르 왕조를 무너뜨렸다.
- ③ 우르두어를 널리 사용하였다.
- ④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였다.
- ⑤ 키루스 2세 때 원통에 직령을 새겨 반포하였다.

05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6월 모의평가]

저희 동고트 왕국 사절단은 페하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야심만만한 유스티니아누스는 페하의 제국인 (가)와/과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세상에 대한 지배욕을 불태우고 있을 따름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유스티니아누스의 제국 동쪽 경계가 방치되어 있으니 이 기회에 즉시 군대를 움직이십시오. 페하께서 주저하신다면 유스티니아누스의 심복인 벨리사리우스의 군대가 페하의 제국으로 쳐들어와 수도인 크테시폰을 짓밟을 것입니다.

- ①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였다.
- ② 밀레트 제도를 운영하였다.
- ③ 바부르에 의해 건국되었다.
- ④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 ⑤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07

밀줄 친 '이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3-9월 모의평가]

프로코피우스는 “유목민으로 알려진 에프탈은 이 왕조의 동북방 접경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이후 이들은 남하하여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는 등 정착 생활을 병행하며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정치 체제를 구축하였다.” 라고 기록하였다. 당시 에프탈은 이 왕조를 압박하면서 인더스강에서 티그리스강 유역에 이르는 동서 교역망을 주도하였다. 한편 에프탈이 편자브 지방을 침공하는 등 더욱 강성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파탈리푸트라의 궁정은 외교적 대응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 로버트 호그, 『동방의 변경 지대』

- ① 가즈니 왕조와의 전쟁에 출정하는 장군
- ② 암리차르 사원에서 기도하는 신도
- ③ 수도 이스파한에 이맘 광장을 조성하는 인부
- ④ 비잔티움 제국과 잦은 전쟁을 우려하는 상인
- ⑤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에 맞서 싸우는 병사

06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수능]

(가) 이/가 비잔티움 제국과 동맹을 맺자, 칼리프 우마르는 먼저 아르무크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궤멸시킨 후 병력을 총동원하여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다. 이에 (가) 은/는 까디시아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반격하였으나, 결국 패전하였다. 이듬해 2개월에 걸친 공방전 끝에 수도 크테시폰이 함락되었으며, 샤한샤 야즈데게르드 3세는 동쪽으로 도주하였으나 후에 암살당하였다.

- ① 우루드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 ②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 ③ 이스마일 1세에 의해 건국되었다.
- ④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⑤ 키루스 2세가 원통에 칙령을 새겨 반포하였다.

08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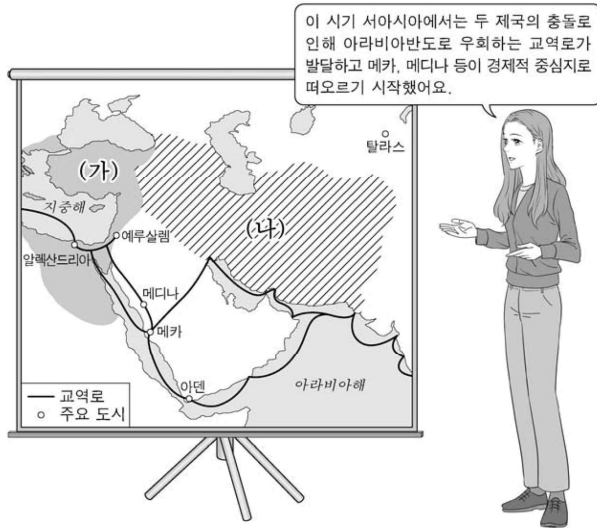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제국의 동방 영토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점차 쇠퇴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사케스 1세가 (가) 을/를 세웠다. 이후 (가) 은/는 서쪽 방면으로는 셀레우코스 왕조, 동쪽 방면으로는 박트리아와 경쟁하였다. 그리고 오로데스 2세 치세에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와 권력을 분점하던 크라수스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한편 전성기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장악하였고, 로마 제국과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중계무역으로 번영하였다.

- ①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였다.
- ② 이란 계통의 민족에 의해 세워졌다.
- ③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 ④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 ⑤ 수도 니네베에 왕립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09

(가), (나)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 ① (가) - 파르티아를 정복하였다.
- ② (가) - 밀레트 제도를 운용하였다.
- ③ (나) -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았다.
- ④ (나) - 이스마일 1세에 의해 수립되었다.
- ⑤ (가), (나) -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였다.